금강경 7만독…원로가 보여준 정진의 힘

금강경 7만독 성만 법산 스님
서울 조계사 초하루법회 법사
"비우다 보면 삼독심 녹아"
참된 불자라면 여기가 행복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사 초하루 법회 법사로 나선 법산 스님은 <금강경>에 대해 "간결하고 마음을 비우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허공도 무상하고 세월도 무심인데 7만독이 무슨 상관인가. 본래 무일물(無一物)하여 탕탕 무가애(無罣礙)로다. 금강은 무소무지요 반야는 무소불능이로세. 눈 개인 밤 하늘에 달빛이 더욱 밝고 깊어가는 겨울 밤 시냇물 소리 더욱 차갑네."

1월 11일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 대웅전에서 아주 특별한 초하루 법회가 열렸다. 2001년 금강경 독송 10만독을 발원한 전 동국대 이사장이자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의 금강경 7만독 성만을 기념하며 이를 찬탄하는 법석이 열린 것.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조계사 대웅전과 앞마당에는 연화장 세계가 펼쳐졌다.

세수로 올해 80세인 법산 스님은 최근 금강경 7만독을 성만했다. 2001년 11월, 부처님 전에 금강경 10만독을 발원한 이래 긴 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은 정진으로 이룬 성과다.

스님은 매일 오전 3시 30분 일어나 예불을 드린 후 정구업진언과 함께 금강경을 독송해왔다.

법산 스님은 "어느날 제자가 하루에 1독씩 10만독 하려면 300년 걸린다더라.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린포체가 돼서라도 정진을 마무리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대학 강의와 회의로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았지만 퇴임 후 본격적으로 금강경 독송이 시작됐다. 하루 8시간 정진하고 아침과 저녁 공양을 뒤로한 채 경전을 읽었다. 코로나19 이후, 법회가 줄고 스님도 외부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났고 매일 10~15회 금강경을 꾸준히 독송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기도뿐 아니라 스님은 동국대 정년퇴직 후 15년이 넘는 지금까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에 방문, 장애인 불자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으며 부처님법을 전한다. 시각장애인들 불자들을 위한 〈점자 금강경〉을 보시하기도 했다.

이날 조계사 초하루 법회 법사로 법석에 오른 법산 스님은 '불취어상 여여부동(不取於相 如如不動)'을 언급하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여실히 동함이 없어야 한다. 초심을 잊지 않고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경〉에 대해 "간결하고 마음을 비우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한 스님은 "비우고 비우다 보면 은산철벽이 깨지는 것처럼 삼독심이 녹아내려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산 스님은 자작시 '바로 여기'를 읊으며 수행정진하는 불자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행복은 지금 여기 기쁨도 바로 지금 / 석굴암 불상을 떠올리는 순간 천년의 미소를 짓고 염화미소를 떠올리는 찰나 영산회상의 법향에 젖어든다 / 연꽃을 연상하면 한마음 향기에 잠기며 매화를 그려보면 짜릿한 봄빛에 감싸인다 / 행복은 바로 지금 시공을 넘어 마음 그릇에 담긴 여기에서 피어나느니."

법산 스님은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다면 바로 여기가 행복의 순간이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바로 여기에서 행복한 삶이 함께하길 간절히 마음으로 기리겠다"며 법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법산 스님은 금강경 7만독 회향 공덕을 연화원 가족들과 인도에서 나눈다. 법산 스님은 청각·시각장애인 10여 명과 함께 1월 20~28일 부처님 성지를 순례한다. 부처님께서 24안거를 보내며 금강경을 설법한 기원정사에서 〈점자 금강경〉을 활용해 독성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고려 대표 동종 '내소사 동종' 국보 승격 되다

문화재청, 내소사에 지정서 전달
진성 스님 "국보 승격, 국민 자랑"
최 청장 연구 인연 승격에 도움

13세기 불교 동종의 기준작이자 고려 후기 동종을 대표하는 '부안 내소사 동종'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9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부안 내소사 동종 국보 지정서 전달식'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참여 대중은 헌공의식을 통해 부안 내소사 동종이 국보로 지정됐음을 부처님께 알렸으며,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서를 내소사에 전달됐다. 동종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부안 내소사 동종이 5번째이며, 부안군으로서는 관내 문화유산 중 첫 국보 지정이여서 그 의미가 더 컸다.

주지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안 내소사 동종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사부대중만의 기쁨이 아니라 최초로 국보를 보유한 부안군민 모두의 영광이며, 전라북도, 더 나아가 온 국민의 자랑"이라며 "내소사 사부대중과 부안군민들은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려 후기 대표하는 最大 동종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2월 26일 국보로 승격된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내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에게 국보 지정서를 전달하는 모습.

종을 만든 내력이 적힌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장인 한중서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고려 고종9)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청림사에 봉안됐다가 1850년(철종 1) 내소사로 옮겨졌는데, 이 내용을 적은 이안기(移安記)도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한중서 연구, 국보 승격 인연으로

부안 내소사 동종을 고려 후기 대표 동종으로 만든 것은 장인 한중서의 숙련된 기술력과 예술성에 있었고, 내소사 동종의 국보 승격에는 장인 한중서를 연구했던 최응천 청장의 오랜 인연과 열정도 한 몫 했다. 최 청장은 대학원 재학 당시 금속공예를 전공하며 청동북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장인 한중서를 만나게 됐다.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 전문가된 최 청장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며 2017년 국보 승격 대상 선정 소위원회에서 내소사 동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부안=신중일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니인터뷰 연예인전법단 권미희 국악가수

"나만의 찬불 콘텐츠 만드는 게 꿈"

2014년 찬불가 앨범 내고
생명나눔 홍보대사 맡으며
불교계 활동 영역 넓혀 가
"청년전법에도 힘 보탤 것"

"가수로서 찬불가를 부를 만한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기보다는 저만의 유일무이한 레퍼토리를 만들어 권미희 한 명을 불러서라도 찬불가 공연을 보고 싶게 만드는 가수가 되려 합니다."

몇 년 전까지 국악가수 권미희는 불교계에서 그리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니었다. 2010년 소리꾼으로서 첫 앨범을 낸 뒤 2014년 3집 앨범을 찬불가로 꾸몄을 때도 그의 신심이 얼마나 깊은지는 쉬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그와 라디오에 출연한 이사장 일면 스님이 2021년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를 제안하면서 불교계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현재는 대한불교청년회,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등으로도 영역을 넓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가수로 거듭났다. 뮤지컬 싯다르타에서는 야소다라 역을 맡아 국악이 아닌 다른 장르에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

권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천주교신자였다.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학업 때문에 성당을 꾸준히 다니진 못해도 스스로를 천주교신자라고 여겼다. 그러다 어머니와 함께 대구역에서 무료급식봉사를 하던 청룡사 주지 보성 스님을 만나 봉사활동을 하며 불교와 가까워졌다. 봉사로 알게 된 불교가 신앙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연도 인연이라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안치행 선생의 '반야심경' 노래를 들려줬는데 그 노래를 연습해 초하루법회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그 노래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권미희의 '반야심경'으로 지난해 재탄생했다.

불교를 신앙하는 예술인이 자신의 종교를 밝히긴 쉽지 않은 세상에서도 권 씨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불교계가 이웃 종교에 비해 예술인을 위한 무대가 적은 것일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불교청년 예술인 모임이 만들어지길 서원하고 있다.

"어딘가에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불교를 주제로 한 청년예술인모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나이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인다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의 프로젝트라면 개인에겐 경력에 도움이 되고, 종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데도 부담이 적을 겁니다."

갑진년 새해 첫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따라 조계사에서 108배를 올리며 한 해를 시작한 권 씨. 이날 "올해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하는 친구들을 포교하고 싶다"고 새해맞이 각오를 전한 그는 후배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전할 계획이다. 거창하지 않고 직접 경험해본 것으로.

"저는 힘들 때 108배를 꾸준히 하거나 100일 동안 사경을 하면서 이겨냈어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마음이 불안하기 마련인데 그때는 부모은중경을 사경했고요. 상황 따라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청년전법 아닐까요?"

윤호섭 기자



권미희 가수는 "직접 경험한 불교를 후배에게 전하고 싶다"며 청년전법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지상 무릉도원 세계자연유산 장가계 5일
■ 주요일정 장가계+원가계+천문산
■ 동 참 금 문의


중국 4대 불산
■ 지역별 상품 – 운강석굴/오대산 5일
– 구화산/황산 5일
– 무석/보타낙가산 5일
– 아미산/낙산대불 5일
■ 동참금 문의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 주요일정 백두산 천지(온천욕)+돈화 정각사


일본
■ 지역별 상품 –오사카/교토 4일
–도쿄/가마쿠라 4일
–큐슈 온천 3일
■ 동 참 금 문의


인도 11일
목/토 출발가능
■ 주요일정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
–바이샬리–쿠시나가르
–룸비니–스라바스티
–아그라–델리
■ 동 참 금 문의


스리랑카 8일
월/수 출발가능
■ 주요일정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
–시기리야–폴론나루와
–담불라–캔디 불치사
–콜롬보
■ 동 참 금 문의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화/금/토 출발가능
■ 주요일정
자카르타–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 동 참 금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